



동동구르무야 즐거움을 올려라



제 6회 전국 품바 명인전이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성황리 열렸다. (사)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JJC(지방자치TV) 전북총국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관계자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전통문화의 도시이며 애항의 도시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광장에서 품바 명인전을 개최하게 돼 영광이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품바 명인들이 주는 웃음과 기쁨을 만끽하라”고 전했다. 또한 “이곳 한옥마을은 1000만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신문과 방송에 자주 소개돼 외국인들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관광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점우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서봉식, 강철민, 김광범, 한창욱 품바가 출연, 희노애락을 담은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열리는 품바명인전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축제로 함께 즐기자”고 말하며, “연간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슴깊이 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품바명인전을 관람하기 위해 전주 풍남문 광장을 채운 관객들.



▶ 품바 명인과 함께 축사를 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왼쪽)과 폐회선언을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오른쪽).

▶ 품바 명인들의 열띤 무대에 흥겨워하고 있는 관객들.



▶ 열띤 무대를 펼치고 있는 품바 명인들.